

**우루과이 동방국화국 전자정부지식정보위원회와
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간의
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**

우루과이 전자정부지식정보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(이하 “양측”이라 한다)는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1. 기본원칙 및 목적. 금번 양해각서(이하 “양해각서”라 한다)는 호혜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각 국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분야의 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2. 협력범위.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의 범위는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.

- a. 측지, 측량, 지도제작 및 원격탐사 기술 개발
- b. 지적도 제작 및 지적관련 제도
- c. 공간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- d.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관련 정부정책, 제도 및 행정 경험 공유
- e. 기타 양측이 상호 합의한 사항

3. 협력방식.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방식은 다음과 같다.

- a. 교육프로그램 및 공동 심포지움
- b. 기술 데이터 및 정보의 교환
- c. 전문가 파견 등 인적 교류
- d. 공동 사업 및 연구개발
- e. 기타 상호합의에 의한 협력방식

4. 이 행.

- 1. 양측은 협력 방법을 토의하고 정보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

양 기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한다.


2. 상호 합의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양측 담당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3. 양측은 양해각서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접촉과 협력을 권장하고 활성화하며, 그들 간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.
4. 양측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.
5. 양측은 MOU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행동을 서면으로 결정한다.

5. 정보 공개.

1. 동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에 의해 취득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.
2. 각 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양측은 양해각서 활동 결과로서 얻게 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제3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. 단, 상대방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.

6. 분쟁 해결. MOU 해석 및 이행에 대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
7. 협 의.

- 
1. 양해각서와 관련된 문제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양측이 협의하며, 상호 협력과 신뢰의 정신으로 어려움과 오해를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.
 2. 양측은 상대방이 해당국의 공간정보 인프라 분야 총괄기관임을 인지하며, 향후 양 국가의 공간정보 인프라 관련 협력은 양 부서를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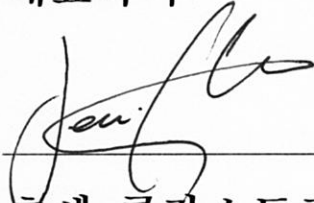
8. 효 력.

1.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일방에서 상대측에게

-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유효하다.
2. 이 양해각서는 양측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서면으로 수정될 수 있다.
 3. 양해각서의 종료(종료 통지를 상대방이 받은 시점)는 진행 중인 협력사업의 조건과 유효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.
 4. 본 양해각서는 양측에 어떠한 법적 의무도 야기하지 않으며, 국제법에 의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이 양해각서는 2013년 5월 6일, 몬테비데오(우루과이 동방공화국)에서 영어, 스페인어, 한국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으며, 각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단,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영어를 우선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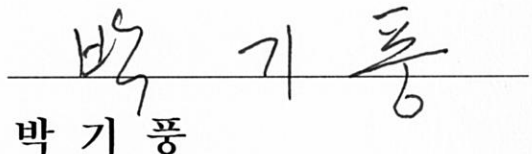
우루과이 동방공화국
전자정부지식정보위원회를
대표하여



호세 클라스토르닉

전자정부지식정보위원장

대한민국
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



박 기 풍

국토교통부 차관